

YTN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 타워 |
TEL. 02.398.8000 | 팩스 02.398.8585 | 휴대폰 YTN 뉴스
청취 200-2424

뉴스
2013
SEPTEMBER
Vol. 106
동서
남북

맑고
높은
하늘아래
YTN





이글거리는 태양과 끝없는 장맛비, 째깍한 대낮에 함께한 천둥·번개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지나갔습니다.

개국 7주년을 맞은 사이언스TV,
서포터즈 활동으로 젊음과 활력을 충전했습니다.
K-사이언스 프로젝트로 '세계 대표 과학 채널'을 꿈꿉니다.

미디어 강자들이 사방에서 포효하는 상암동 시대가 곧 펼쳐집니다.
우리에게만 만만치 않은 도전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만큼 철저한 준비로 상암동 시대를 맞이합니다.

C O N T E N T S

핫 이슈 1	상암동 시대를 기대합니다	
	서정호 상암동 시대, 뛰어야 산다	004
	고원식 살아 숨쉬는 YTN을 건설하다	006
	이철세 사진으로 보는 YTN 미디어센터	008
핫 이슈 2	사이언스TV 개국 7주년	
	한정호 비상(飛上)하라! YTN사이언스	010
	박경훈 내 꿈에 (YTN SCIENCE)를 플러스!	012
	안성명 과학창의축전에 중심이 되다!	014
ZOOMIN 1	특파원 보고	
	김원배 길고 긴 섬, 롱 롱 아일랜드에서 만난 박인비	016
ZOOMIN 2	신입 앵커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018
특별기고	창조 경제와 YTN	
	현대원 미디어 산업과 창조 경제, 그리고 YTN의 전략	020
제작기	YTN 스페셜 <태극 날개, 세계로 날다>	
	김용섭 몰랐다. 전투기까지 만든다는 걸	022
YTN 영어토론대회	우승팀 First Tournament	
	홍현진 자신 있었다	024
YTN 라디오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	
	손영주 <Ytnradio E-Studio> ... YES!!!	026
	김나연 '유럽의 경제위기 그리고 우리는'	028
YTN 월드	YTN 월드가 있어 행복합니다	
	신승현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030
YTN 웨더	지루할 틈 없이 변해가는 '날씨'	
	정진아 날씨를 담은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032
YTN DMB	DMB DGPS 고정밀 위치기반 서비스	
	이승엽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는 DMB DGPS로	034
게시판	게시판	035

상암동 시대, 뛰어야 산다



서정호 | 신사옥TF팀 아트디렉터

두 달이 지나면 사용 승인을 허가받는다. 연말이면 준공에 이른다. 새로운 봄이 오면, 우리는 남대문을 떠나 상암으로 향한다. 주지하다시피 그곳은 세렝게티 초원이다. 미디어 강자들이 사방에서 포효하는 곳이다. 웬만한 체급이 없었다면, 포석조차 놓기 힘들었을 곳이다. 개국 후 이십 년이 되어간다. 우리는 두 번의 이사를 거치며 변화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이런 도전은 처음이다. 전장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선택, 떨 수 없다. 자신감으로 총만해 있어야 한다. 내적 정신은 심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전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철갑 방패를 들고 있다. 이제 곧 세련된 무기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눈앞은 세렝게티 초원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 약관에 이른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정면을 노려보고 있다.

어색한 안전모를 눌러쓰고 현장을 누비다 보면, 농밀한 땀을 흘리는 구릿빛 피부의 인부들과 마주친다. 소중한 그들의 땀방울에는 응축된 염분이 스며있어, 건물은 그들의 땀방울을 차근차근 탐해낸다. 건물 생성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양분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부의 망치질과 사물의 대담. 그러한 연속된 재련은 건물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 허리춤을 이루게 되는 지점이다. 거주역의 쾌는 그 부위의 성실성으로 마감된다. 건축에 사용되는 돌·나무의 재료는, 본디 자연적 한계와 수령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그것은 자연의 일부였던 것이며, 썩어 없어질 수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부들의 노동과 입주자들의 거주로서 활용될 사용가치는, 자연의 일부였던 것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시키고 수령을 내용연한으로 전환시켜 천 년의 시간도 버텨가게 만든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다. 점심을 마쳤던 인부들은 잠깐 동안 눈을 감는다. 오전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명함에는 기하학적 로고 반짝거리며 삼복 햇살을 반사시키고 있다. 그렇다. 명함에서부터 사옥까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크기로서 그 가치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창작이든 간에, 그것은 크기와 소재의 차이를 훌쩍 뛰어 넘는다. 만든다는 것은 깊은 고민을 수반한다. 또한 많은 시간과 정성 역시 필요로 한다. 상암동 신사옥 이전 프로젝트도 그러한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사물이 변함없이
오래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사물의 효용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지속되도록 애쓴다.

명함 디자인은 어떠한가하며 건물 외부에 들어갈 미술장식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 실국별 합리적 배치는 무엇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은 방송국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취재 편집부서 사이의 직통 계단은 왜 놓아야 하고, 벽체와 사무실의 컬러톤은 어떤 배색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지, 구글어스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이며 그래서 옥상 조경에 설치될 새로운 로고는 어떤 식재로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마감되어야 하는지, 나열하자면 커피 두 잔 이상을 필요로 한다. 신사옥 프로젝트와 관련된 창작의 이슈는, 그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끊임없는 고민을 요구해 낸다.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과 시간은 준공에 다가서 있다.

사상가 니콜라스 다빌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물이 변함없이 오래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사물의 효용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지속되도록 애쓴다." YTN은 명함에서부터 사옥까지 통일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야 한다. 신사옥은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표현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신사옥은 거울에 반영될 당신과 나의 어여쁜 얼굴도 드러낼 줄 알아야 하고, 미래를 반추해 낼 희망 역시 그려낼 줄 알아야 한다. 상암동 신사옥은 방송·건축이라는 본연의 기능적 효용성 외에도, 미적 마감 역시 명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그 가치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YTN의 브랜드 가치란, 결국은 소소한 명함에서부터 거대한 사옥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아름다움 가운데 놓여야 지속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움으로 완성되는 우리들의 신사옥은, 구성원들의 손과 발·이목구비가 각인되어 있다. 나아가 훈령까지도 깃들어 있다. 벽돌 한 장 한 장, 유리창 한 쪽 한 쪽에는 YTN 구성원들의 성실했던 족적과 깊이 있는 사유가 녹아 있어,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엄혹한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호혜적으로 드러나 있다. 불안하지만 희망찬 사옥이 눈앞이다. 미디어 강자들이 우글거리는 세렝게티 초원 역시 코앞이다. 무기를 들자. 신발 끈을 동여매자.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뛰어 생존할 수 있다. 상암동 시대, 이제는 '뛰어야' 산다.

살아 숨쉬는 YTN을 건설하다



고원식 | YTN 미디어센터 현장 감리단장

YTN 미디어센터는 뉴스의 속성을 건축적으로 투영하여 끊임없이 반짝이는 등불, 살아 숨쉬는 YTN,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유기체의 콘셉트로 설계됐다.

DMC의 관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형성한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한 YTN 뉴스의 열정과 에너지가 하늘로 분출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YTN을 세상에 보여주는 투명한 창으로, 보행자의 흐름과 조응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스튜디오는 차량 동선과 최대한 멀리 배치해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했다. 건물 CORE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업무 공간과 방문객의 투어 동선을 고려해 시설을 배치했다. 광장과 공원의 녹지를 흡수하여 미디어센터로 연결하였으며, 독특한 입체감이 있어 튀는 외관에도 주위 환경과는 어울리게 설계했다.

건물 외벽에 미디어월의 수직 루버를 이용하여 야간에 LED 조명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주간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YTN 미디어센터에 걸맞는 미디어 보드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옥상과 6층 정원은 남측 공원 녹지와 대응하여 미디어센터를 소통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정률이 약 80%인 현 시점에서는 외부커튼월 공사와 유리 공사가 주 공정이고, 스튜디오 음향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 관리 절차로는 각 공사 종류마다 시공 계획, 자재 선정, 시공 상세도에 대한 승인 절차가 이행된 후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새로운 공정 시작 전에 전문 하도급 공사업체가 공사 추진 계획 전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기본적인 공사의 절차, 사용할 장비, 작업 인력, 공법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승인을 얻은 이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YTN신사옥건설추진단, 감리단, 시공사가 품질보증과 안전 및 유지 관리 차원에서 밀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자재 선정은 주어진 사양서를 기준으로 품질이 보증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 및 내구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각 공사 종류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오차가 없도록 설계 도면과 사양서를 기준으로 구조적 일관성과 미려한 마감, 유지 관리의 편리성 등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다. 각 공사 종류별 시공 중 또는 시공이 완료 후 사전 승인된 절차에 의해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원칙이 준수되고 품질이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한다.

YTN 미디어센터의 진정한 주인은 현재의 사원이지만 미래에 거주하여 근무할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공식 (2011. 4. 25) | YTN 미디어센터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연속벽 철근망 설치 (2011. 8. 5) | 지하 연속벽은 지하층 벽 구조체로 땅을 파기 전에 흙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이다. 또 본 공사에서도 철거하지 않고 외벽으로 사용된다.



상량식 (2013. 3. 15) | 상량식은 철골 구조 작업의 마무리이다. 상량식을 끝내고 최첨단 방송 인프라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으로 보는 YTN 미디어센터

YTN 미디어센터는 올해 연말 완공돼, 내년 봄부터는 YTN 상암동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지상 18층 지하 6층 규모의 최첨단 친환경 방송용 건물인 YTN 미디어센터는 YTN과 YTN 라디오, YTN DMB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또 '종합 미디어 그룹' YTN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신사옥 건립 추진팀은 YTN의 미래 비전이 담긴 YTN미디어센터 공사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철세 | 신사옥건립추진단





대한민국의 문화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주역인 한류.. YTN사이언스는 유네스코 아시아본부와 함께 우리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아태지역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K-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과학 한류'의 시작이다.

지난 4월 몽골과 필리핀에 우리 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된 데 이어 7월에 부탄, 8월에 팔라우, 피지, 사모아,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9월엔 베트남에도 YTN사이언스 콘텐츠가 무상 공급될 예정이다.

화려한 외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청률은 YTN사이언스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특히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 채널, BBC Knowledge 등 외국의 과학 채널에 비해 크게 낮은 채널인지도 역시 하루속히 높여야 할 과제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국의 맛',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현대사적으로 재조명하는 '한국사담'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역민방 등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우수 프로그램상을 받는 등 주목받고 있는 것은 YTN사이언스가 그동안 축적한 저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9월 17일 개국 7주년을 앞두고 YTN사이언스가 1년간의 기획을 거쳐 아심차게 제작하고 있는 5부작 생명복원 프로젝트 '종의 부활 II'도 대한민국 자연 다류의 새 장을 열 기대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한상상 창의채널 YTN사이언스'는 꿈을 현실로 앞당기는 창조 경제의 핵심이다. 아시아 대표 과학 채널을 꿈꾸고 있는 '한국의 과학 채널' YTN사이언스의 비상을 지켜봐 주기 바란다.



한정호 | YTN사이언스 편성기획팀장

비상(飛上)하라! YTN사이언스

5, 4, 3, 2, 1... 큐!!!

2007년 9월 17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전문 방송 YTN사이언스가 힘차게 첫 전파를 송출했다. '어렵고 딱딱한 과학'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자는 목표로 출범한 YTN사이언스.. 방송 시작 당시 불과 300만 가구에서 시청하던 YTN사이언스는 7년여가 지난 지금 전국 1,860만 대부분 가구에서 시청하는 국민의 과학 방송이 됐다.

YTN사이언스는 특히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YTN월드를 통해 5대양 6대륙의 200만 해외동포들에게도 우리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알리는 창이 되고 있다. YTN사이언스가 7년간 제작한 과학 콘텐츠는 200여 개 프로그램에 7,000편에 육박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저는 운이 좋게도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뉴스 프로그램에도 배정되어 친절하신 선배들과 같이 현장 취재 경험을 쌓을 기회까지 얻었고, 서포터즈 활동이 끝난 지금 기획부터 영상편집까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방송 전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름 실행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타의 대학생 서포터즈 등 대외 활동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대학생 관련 프로그램과 달리 <YTN SCIENCE> 서포터즈는 매일 방송국에 나오며 제작 담당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직간접적으로 방송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같이 언론, 영상 비전공자들에게 '방송을 배운다, 배우고 싶다, 혹은 꿈꾸고 싶다'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YTN SCIENCE> 서포터즈는 다양한 전공,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YTN SCIENCE>에서 2달이 지난 저의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YTN SCIENCE>의 소중한고도 가치 있었던 경험들은 꼭 방송 관련 진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분야에 진출해서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저만의 큰 강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2달여 간의 서포터즈 활동은 끝났지만, 요즘에도 자기 전 눈을 감으면 YTN 타워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이곳에서 만났던 본부장님, 팀장님, PD님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함께 보냈던 우리 <YTN SCIENCE> 서포터즈 3기 친구들은 제 기억 속 사진첩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YTN SCIENCE>의 많은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여기서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며, 2013년 제 기억 속 여름의 힐링 캠프 <YTN SCIENCE> 서포터즈 영원하리!!!



박경훈 | 중앙대 경영학과 <YTN SCIENCE 서포터즈 3기>

내 꿈에 <YTN SCIENCE>를 플러스! +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장마와 이글거리는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무더위를 지나니 어느새 가을이 제 앞에 성큼 찾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3년 이 여름이 모두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 <YTN SCIENCE> 서포터즈는 제 삶에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막연히 가져왔던 방송에 대한 호기심을, 제 가슴속 한편에 간직해 두었던 방송에 대한 저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우연히 본 <YTN SCIENCE> 서포터즈 모집 공고는 저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서류 전형과 긴장되는 면접 전형을 통과하여 다양한 20명의 친구들과 함께한 <YTN SCIENCE> 서포터즈!

방송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됐던 프로그램 배정 추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한 <YTN SCIENCE> 서포터즈 3기! 뉴스, 다큐멘터리, 교양 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각자 속해 방송 전반에 대한 실무를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과학창의축전의 중심이 되다!

지난 7월 30일 국내 최대의 과학축제인 '2013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이 일산 킨텍스에서 6일간 열렸다. 31만 명의 관람객! 300여 개의 기관과 400여 개 체험활동! 대규모 과학축제에 YTN사이언스 또한 참가하여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2008년부터 작년 2012년까지 연속으로 참가한 YTN사이언스는 앵커 체험, 과학퀴즈 OX 등 체험 행사를 준비하여 관람객들에게 재미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렇게 고심하여 결정 내린 프로그램들은 주제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음악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와 게임 등 이었다.

사실 음악회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긴 하였으나 '과학체험행사에서 음악회를 하면 재미가 있을까?' '어떻게 음악과 과학을 연결하지?' 걱정이 말이었다. 우리가 섭

외한 <NMC 솔리스트앙상블>의 대표 또한 음악과 과학을 연결하여 진행해 달라는 부탁에 난색을 표현할 정도였다. 또한 3일간 '2013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중앙무대 공식행사로 <NMC 솔리스트앙상블>의 공연도 YTN사이언스에서 기획을 추진하였기에 부담은 더욱 컸었다. 그러나 걱정은 행사 첫날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음악 속에 숨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퀴즈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있었으며, 작은 부스였지만 성악가들의 폭발적 성량이 킨텍스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중앙무대 공연의 경우 수천 명의 관람객이 있는 가운데 YTN사이언스 로고가 새겨져 있는 가로 30m 세로 10m의 대형 빔프로젝트 화면이 펼쳐졌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YTN사이언스의 직원으로 뿌듯함과 몽클함이 느껴졌다.

특히나 다른 기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앵커 체험'은 YTN사이언스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의 무기였다. 정말 앵커가 된 듯한 표정과 발음을 하여 큰 박수를 받은 어린이, 한 가득 웃음을 머금고 파이팅을 외치는 엄마, 앵커가 된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애쓰는 아빠. YTN사이언스의 부스는 어느덧 가족들의 추억장소 만들기가 되었다. 과학퀴즈 OX 경우 최종 우승자는 할머니이셨는데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다. 한가득 선물을 안고 가족에게 달려가시는 모습은 마치 어린이를 보는 듯했다. 이렇듯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서 부스를 운영하는 모든 스텝 또한 지지 않고 열심히 운영할 수 있었다.

'YTN사이언스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어요', '우리 학교에 촬영을 왔었는데 인터뷰했어요', 하며 연신 관람객들이 반가움을 나타낼 때면 괜스레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번 행사를 운영하며 확실한 것은 YTN사이언스가 시청자인 국민들과 더욱더 친해졌다는 것이었다. 사실 YTN사이언스의 경우 콘텐츠의 질은 높지만, 채널의 인지도가 부족하여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시청자들이 아속할 때도 있지만, 과학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질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성명 |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보스턴 ...> 케임브리지 ...> 롱아일랜드 서보넥 골프장 ...> 샌프란시스코

뉴욕 특파원으로 일한 지 7개월 동안 뉴욕 시 밖으로 취재를 간 곳들이다.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5월 가수 사이의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 강연, 6월 롱아일랜드 서보넥 골프장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에서 63년 만의 대기록을 세운 박인비 선수, 7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이 가운데 박인비 선수에 대한 취재는 프레스 카드 발급과 관련한 '신의 한 수' 때문에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다.

박인비 선수가 LPGA 한 시즌 메이저 대회 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은 뉴욕 시간으로 6월 30일(일) 오후, 한국 시각으로는 7월 1일(월) 아침이다. 그날 아침 YTN의 박인비 선수 인터뷰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대회가 열린 서보넥 골프장 현장에서 박인비 선수를 인터뷰한 방송사는 YTN과 SBS 두 곳뿐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메리언 골프장에서 6월 16일 막을 내린 올해 US 오픈에 최경주 선수가 출전했다. 대회 개막 열흘 전쯤 이 사실을 알고 최경주 선수가 선전하면 마지막 라운드에 취재를 가려고 카메라맨 겸 코디 1인 2역을 하고 있는 이상욱 씨에게 프레스 카드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미 마감이 지나버려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알았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순간 이상욱 씨가 US 여자 오픈이 6월 27일부터 롱아일랜드 서보넥 골프장에서 열리는데 이 대회라도 프레스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왔다. 나는 순간 고민했다. LPGA 투어에서 한국 여자 선수가 우승하는 것은 이제 큰 기사가 안 되는데다 그 시점은 박인비 선수가 올해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웨그먼스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기 전이라 박인비 선수의 대기록 수립 가능성과 US 여자 오픈이 전혀 주목을 받지 않을 때였기 때문이다. 나는 취재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후배가 프레스 카드를 신청하자는데 하지 말자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신청하라고 했다. 며칠 뒤 프레스 카드가 발급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6월 27일 US 여자 오픈 개막을 이틀 앞두고 방송사 뉴욕 특파원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다. 모 특파원이 US 여자 오픈에서 박인비 선수가 우승할 경우 63년 만의 대기록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프레스 카드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회 현장인 서보넥 골프장에서 박인비 선수를 취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나도 모르



- 1
- 2
- 3
- 4

01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02 가수 사이의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 강연
03 US 여자 오픈에서 63년 만의 대기록을 세운 박인비 선수
04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어! 우리 YTN은 프레스 카드 받았는데'
대회가 열린 서보넥 골프장
현장에서 박인비 선수를 인터뷰한
방송사는 YTN과 SBS
두 곳뿐이다.



게 예! 우리 YTN은 프레스 카드 받았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내 말에 다들 깜짝 놀랐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자회사인 LPGA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 뉴욕 특파원은 자회사의 도움으로 전광석화처럼 프레스 카드를 발급받아 현장에서 YTN과 함께 박인비 선수를 인터뷰했다.

박인비 선수가 63년 만의 대기록을 세운 롱아일랜드의 서보넥 골프장은 행정구역으로는 뉴욕 주 서쪽 카운티의 사우샘프턴이라는 곳에 있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일요일 오전 맨해튼 지국 사무실을 출발해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갈아타고 3시간 가까이 달려서야 도착했다. 그러고도 거기가 롱아일랜드의 끝이 아니었다. 정말 길고 긴 섬, 롱 롱 아일랜드였다.

멀고 먼 뉴욕에서 지면으로나마 YTN과 YTN 가족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안부를 대신합니다.

김원배 | 뉴욕 특파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리

저는 무지개 빛깔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늘 뽐어내는 붉은 열정,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톡톡 튀는 오렌지 비타민 같은 매력, 마음만큼은 나이 먹지 않는 셋노란 병아리 같은 순수함, 함께 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맑은 마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푸름. 이야기 나눠보면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편안함, 이 사람에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신뢰감.



노호연

제게는 조금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본 사람의 얼굴과 그들의 이름을 쉽게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겁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많은 인연을 스스로 만들었고 또한 그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명사전'이라는 재밌는 별칭까지 얻게 됐죠. 언제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YTN의 신입 앵커 노호연입니다.



연빛나

2011년 대학 졸업과 함께 방송을 시작한 지 고작 3년 차.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딪히고 후회하지는 마음으로 늘 현실에 푹 빠져 살아왔고, 즐기자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원하는 자리에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럴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선지

그림 한 폭을 완성할 때 짧게는 4, 5시간이 걸립니다. 한자리에 앉아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열정적이지만 신중한 성격인 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또 있다면 바로, 뉴스를 전달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신뢰감 있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산업과 창조 경제, 그리고 YTN의 전략

디지털 생태계에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상황인지 서비스, 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M2M 등 무궁무진한 새로운 엔진들이 넘쳐나면서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는 구글, 애플로 대표되는 글로벌 ICT 기업이 급성장하고 이들이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음에 반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등을 잇는 신수종 산업 발굴 부재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고 잠재 성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부의 분배에 대한 불만은 지속해서 고조되어 가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한 지 오래다. 이처럼 적신호가 켜진 우리 경제의 저성장 문제와 청년실업, 저출산과 양극화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총체적 솔루션에 대한 필요가 창조 경제라는 시대적 화두를 등장시킨 것이다.

창조경제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ICT·과학기술과 융합되면서 신시장과 신산업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들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민행복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한 구글, 애플의 사례와 같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소프트웨어가 혁신적 시장을 창출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임은 자명해 보인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이어지는 디지털 생태계에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상황인지 서비스, 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M2M 등 무궁무진한 새로운 엔진들이 넘쳐나면서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ICT 융합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빠른 진화와 시장 재편을 겪어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들 분야는 우리가 즐기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며, 또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특징이 있어 창조경제의 가장 대표적 산업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디지털 생태계의 또 다른 특징은 강력한 콘텐츠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한류' 현상을 통해 ICT 서비스업의 혁신 가치 창출을 실감하고 있다.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글로벌 오픈 플랫폼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음원 및 영상물들이 전 세계 유저들에게 소개되고 이들에 의해 다시 자발적으로 홍보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한류의 파급효과는 콘텐츠의 수출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효과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은 신기할 정도이다. 일례로 한류 국가인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34%, 7,716% 늘어났으며, 중남미에서도 지난 5년간 한류 국가인 페루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320% 늘어나는 등 한류의 경제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디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몇 가지 방향성과 원칙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 적자생존의 시대는 지났으며, 상생과 협업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한 가치 혁신과 가치 창출에 주목해야 하며, 최종적인 승부는 개별 기업군이 아닌 생태계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새로운 ICT 융합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는 친숙할수록 미래가 밝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셋째, 구글이 주목한 C-세대 즉 적극적인 소통과 공유, 참여를 즐기는 스마트 유저들을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들의 에너지를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어떻게 끌어들이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설정과 공유, 창의성에 대한 존중과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에서 위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조직 문화 등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원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몰랐다. 전투기까지 만든다는 걸



김용섭 차장 | 제작팀

취재 전까지는 명색이 공군 출신인데도 몰랐다. 우리나라가 국내기술로 전투기까지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조그만 훈련기나 헬기 정도는 만들겠지 생각했다.

인구 12만의 중소도시 경남 사천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요람으로 불린다. 국내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우주항공산업(KAI)이 그곳에 있다. 사천시민들은 항공기 생산도시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시내 택시 지붕에는 하나같이 항공기 모형이 달려 있다. KAI는 십수 년 전 예비군 훈련 때 한 번 가봤다. 그동안 상전벽해라 불릴 정도로 공장 규모가 커졌다. 생산하는 항공기 종류도 늘어 KT-1 초등 훈련기와 얼마 전 육군에 실전 배치된 기동헬기 '수리온', 그리고 고등 훈련기 T-50 등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전투기 FA-50을 취재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었다. 7월 초부터 취재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FA-50의 시험 비행 시기가 취재기간과 겹쳤다. 날씨 때문에 몇 차례 연기가 돼 서울과 사천을 오가는 번거로움이 더했지만, FA-50의 시험 비행 장면을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FA-50은 생각보다 좋은 전투기였다. 최대속도가 마하 1.5의 초음속 전투기이고 미사일과 유도 폭탄 등 4.5톤까지 무장할 수 있다. 항공기에 장착된 첨단 전자장비는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가운데 하나인 F-16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하다. 공군 관계자는 'FA-50 정도로도 북한과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훌륭한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산 비행기를 만든 건 지난 1990년대 초다. 공식적으로 양산으로 이어진 최초의 국산 비행기는 KT-1 초등 훈련기다. KT-1은 1991년 12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공군 사관학교 등을 졸업한 초급 장교들은 지금 이 비행기로 전투기 조종사가 되



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KT-1은 안전성이 무척 뛰어난 훈련기인데 우수한 성능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등에서 77대를 사갔다.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생산국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T-50 고등 훈련기도 멋진 비행기다. 우리나라 공군 특수 비행 팀 '블랙이글'이 각종 에어쇼에서 선보이며 이름을 알린 비행기다. KT-1으로 초등 비행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비행 연습을 한다. 훈련기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음속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6대를 수출하면서 해외 판매의 물꼬를 텄다. 지금 이라크, 필리핀, 칠레, 미국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11번째 헬기 생산국의 주인공 기동헬기 '수리온'과 4인승 민간 항공기 '나라온' 등도 우리나라가 일궈놓은 항공 기술의 산물들이다.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자동차 산업을 많이 닮아가는 듯 보인다. 지금은 신화가 된 '포니' 자동차가 처음 해외시장에 선보였을 때 외국 언론들은 '엔진 달린 세탁기'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항공 산업이 자동차처럼 성장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불과 20년 전 KT-1이라는 프로펠러 항공기를 만들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초음속 전투기에 기동헬기, 무인 항공기까지 만드는 걸 보면 그 저력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머잖아 많은 국가가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후보에 올려놓을 날이 꿈만은 아닐지 모른다.

자신 있었다

홍현진 | 청심국제고 3학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 이 자신감에 나도 놀랐다. 많은 준비를 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고 대회 시작이 다가왔는데도 아직 준비 주제들도 끝내지 못했다. 우린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청심 영어토론크amp (CEDC 2013 Summer)를 주최하고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번 대회장에 오며 우승에 대한 마음을 비우자며 농담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규와 지훈이와 함께 내 고교 마지막 토론대회에 참가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겼고 저절로 우승 욕심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내 디베이트 인생 최고의 팀 메이트들이었던 애들과 마지막 대회를 치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과 우승하고 싶었다.

우리 팀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고 토론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팀 명을 First Tournament로 정했다. 우리 팀원들은 서로 너무 잘 알고 믿기 때문에 강한 팀이다. 어느 한 명이 팀을 이끌거나 팀을 끌어내리는 일은 없고, 각자 서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줄뿐더러 서로가 놓친 부분, 얘기하지 못한 부분, 더할 부분에 대해 경기 도중에 끊임없이 주고받고, 순서가 끝나도 토론에 다 함께 열중하는 팀워크가 중심이 되는 팀이다. 내 양옆에 있던 두 친구는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해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애들이기 때문이다.

예선 경기들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들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예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본선은 달랐다. 팀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16강인데도 다들 '4승 1패'한 쟁쟁한 팀들만 남

아서 우리는 내내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긴장을 풀어준 녀석들이 우리 학교 후배들이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우리 학교 후배들이 우리 경기를 응원해주기 위해 모든 본선 경기 때 관중석에 와줬다. 그 애들 덕분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힘든 본선 경기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4강전에서 만난 Rains of Castamere 팀과의 대결이 결승 외에 가장 기억에 남을 경기였다. 사실 영어토론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상위권에서 만났던 아이들이라 대회 내내 경계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경기 중에 '우리가 우승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 첫 팀이었다. 경기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서로 믿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이길 수 있었다.

우리의 결승전 상대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모현면이었다. 모현면은 작년 광주 대회에서 우리를 4강에서 떨어뜨리고 우승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은 우리에게 복수전이였다. 그래서 이렇게 결승전에 만나게 된 것은 우리의 오기를 자극했다. 결승전은 결승전답게 정말 치열했고 끝까지 집중을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인지 결승이 끝나고 챔피언을 발표하기 직전에 우리는 결과가 8:1로 나왔을 때 너무 심하게 패배한 줄 알고 좌절하고 있었다. 물론 경기 중엔 이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심판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법. First Tournament가 우승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아마 우리들의 표정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가장 잘 보여줄 듯싶다.





Ytnradio E-Studio YES!!!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청취자와 함께할 수 있는 YTN라디오 앱, '예스(YES)'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YTN라디오 청취자들의 손안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다가가게 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식
“예스~”하면, 발음이 편하고 긍정적인 어감이 든다는 점, “Ytnradio E-Studio”의 약자로, “내 순간의 작은 e-스튜디오”라는 뜻입니다.

예식 가 담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처럼, YTN radio 하면?? 예식 그래! 좋대 라는 뜻을 떠올릴 수 있도록 YTN radio 애플리케이션에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스'는 모바일 소셜미디어 시대 발맞추고자 YTN라디오 전용으로 개발된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특히 메시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청취자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SNS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돼 생방송 중 참여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YTN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예스'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치열한 경합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6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YTN 라디오 직원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애칭 공모가 진행됐죠. 1차 6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애칭 추천을 받고,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가 있었 습니다.

아뉴스, 와인, 와플, joy, 뉴스talk, 나플 등 22개 후보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식구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22개 모두 애칭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지만, 타 방송사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예스(YES)'가 선정됐습니다.

무엇보다 YTN 라디오를 상징하면서 짧고 간단한 용어, 한 번 들으면 또렷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애칭을 염두에 두고 고민한 끝에 나온 'YES!' 지금까지 YTN라디오를 지켜주셨던 많은 청취자가 언제 어디서나 YTN라디오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고, 문자나 쿼즈 참여, SNS 활용 등 방송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지금부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거죠~?



손영주 | YTN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애칭 공모 당선자

‘유럽의 경제위기 그리고 우리는’

| 김나연 | YTN 라디오 뉴스제작팀

늦은 저녁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지만 밤 같지 않은 밤 백야 현상으로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프랑크푸르트(Bankfurt)로 불리는 금융과 상업의 도시 프랑크푸르트를 감상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인 프랑크푸르트는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중세 시대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매년 유명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 도시답게 여기저기 박람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유럽 경제비도 디플로마 과정의 10박 11일간의 일정이 시작됐다. 나를 포함한 각 언론사 기자 8명이 참여한 이번 일정에는 프랑크



푸르트(독일), 브뤼셀(벨기에), 런던(영국)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유럽당국과 현지 금융회사, 투자업계, 학계 등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첫 번째 일정은 ECB 방문으로 시작됐는데 그곳은 1층 기념품 상점을 제외하면 철저히 출입이 통제된다. 우리 일행도 그곳으로 들어가기까지 여권확인인 물론 공항 수색대를 방불케 하는 출입 확인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미팅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ECB(유럽중앙은행) 관계자는 유럽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을 은폐해 도산 위험이 큰 이른바 좀비은행이라고 분석했다. 이들로부터 시작해 주요 금융기관까지 오염시킨 것이 지금의 유럽경제위기의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ECB가 단일 감독기구로 출범해 이런 좀비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유럽경제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전망했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권위자 가운데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통(FAZ)의 경제 에디터를 만난 자리에서 유로존 출범 이후 수출 증가로 극적인 성장을 이룬 독일이 유럽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지금의 경제 성장은 자국의 노력 때문으로 반드시 유료화 도입의 덕을 본 것은 아니라며 독일이 계속 부담을 지는 것은 옳지 않고 위기 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유지하며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간의 프랑크푸르트 일정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도착한 브뤼셀은 EU와 NATO 등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이 도시의 인구 1/5이 외교관과 그의 가족들이라고 한다. 그 때문일까? 유럽국가 중 가장 작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작지만, 국제 경제 및 정치의 중심지답게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리고 브뤼셀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도시이기도 하다. 주먹아 꿀목꿀목마다 초콜릿 가게가 있고 연간 17만 t 넘는 초콜릿을 생산해 30억 유로(약 4조 2천억)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동료들에게 줄 초콜릿을 사왔



지만, 유럽의 폭염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초콜릿의 형태는 녹아 사라져 버려 마음만 전달했다. 벨기에 대사관에서는 기자단에 한국 음식으로 만찬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간 현지 음식에 지쳐있던 우리는 오랜만에 고향의 맛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행선지인 런던에서는 유명 언론기관 방문과 경제 저널리스트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는데 그중에서도 BBC 방문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런던 신사옥의 BBC 건물 안에는 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BBC 월드뉴스 채널을 포함 뉴스채널 3개, 라디오 채널 9개, 26개 언어로 방송되는 국제 방송 월드 서비스가 전 세계 2억 4천만 시·청취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곳의 모든 공간은 오픈되어 있어 제작진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곳엔 2종류의 미팅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 미팅 장소는 아무 때나 와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미팅 장소는 투명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미팅 룸인데 이곳은 미리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엔 누군가의 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취재 중 사망한 기자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적어 넣은 미팅 룸이다. 이곳엔 이와 같은 미팅 룸이 60여 개가 있다고 한다.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이런 마인드가 지금의 BBC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부러움도 있었다.

LSE(런던정경대) 찰스 굿하트 교수와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난 ECB, EU 등 유럽당국자들은 유로존은 최악의 위기는 넘겼으며 대체로 낙관에 가까운 입장을 내놓았고, 학계와 싱크탱크, 경제 저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위기가 장기화, 심화하고 있



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더불어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 세계 경제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며 이어 “한국은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이 많은데 이런 두뇌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며 단, 이러한 인적 자원을 통해 다음 미래를 준비할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 신승현 | 미안마 리포터 |

미안마의 아침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감촉이 좋습니다. 새벽에 산보를 나갈 때마다 진정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기인 지금도 항상 27도 내외로 제법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미안마의 날씨는 제게 축복입니다.

예상과 편견을 깨는 것은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제 딸이 가장 더운 5월 초에 미안마에 와서 위안을 받은 게 음식입니다. 밥과 국물을 기본으로 마늘과 고추 등의 야채를 우리처럼 젓갈이나 된장에 찍어 먹지요. 음식이 입에 맞아 식사시간마다 즐겁습니다. 언어도 우리와 어순이 동일해 배우는 데 한결 편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북방에 산을 배경으로 사는 산(Shan)족 같은 경우는 우리와 유사합니다. 이곳 젊은이들이 K-pop을 좋아해 콘서트를 열었는데, 우리와 너무 흡사해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최근 100년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미안마와 우리는 근대사는 거의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은 특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립투쟁과 해방, 민주화 실험의 실패로 군사독재라는 동일한 길을 걸었는데, 한국은 개발독재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반면,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등 한때 아시아의 부국이었던 미안마는 군부의 압제 하에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미안마의 개혁개방이 시작됐고, 그 물결을 타고 저는 지난 3월 6일에 미안마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장모님, 딸과 함께 들어와 온전한 가족이 됐지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꼭 외국에 나가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국에서 행복을 찾아 '살을 살아보

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약 40여 개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미안마는 처음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지내면서 점점 깨지기 시작했고, 가족 또한 서서히 만족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자부심을 느낄 만합니다.



YTN WORLD가 있어
흥분됩니다. 우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을 뉴스 아이템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국에서 삶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접한 YTN WORLD의 리포터 모집 공고를 보고, "아 저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의 PD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안마는 빈부격차만큼이나 미디어나 통신 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엄청 비쌉니다. 프로젝트 하는 미안마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5분짜리 프로그램 제작에 1,000달러를 요구해 질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내레이션을 스튜디오에서 해야 하는데 사정상 양곤 시내를 배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6밀리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주유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여기서 자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면서 동시에 오래된 미래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YTN WORLD가 있어 흥분됩니다. 우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을 뉴스 아이템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에 비타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곤은 정원의 도시라 불릴 만큼 나무가 울창합니다. 그 속에 언제나 삶의 고귀함을 선사하는 가족과 함께 오늘도 YTN WORLD를 보며 우리는 서로 미소를 보냅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자본주의가 아닌 '미소 자본주의'를 일구는 우리의 꿈을 미안마에서 그리면서...

날씨를 닮은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 정진아 | YTN웨더 기상그래픽팀 |



다양한 시도와 정보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자

어릴 때 TV에서 저녁 뉴스가 방송되면, '일기예보'만 챙겨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날씨를 알려준 뒤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지, 통통 튀는 음악과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몇 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세심하고 따뜻하고 재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기예보'라는 것이 그날의 기후를 알려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감성'까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포맷이나 소스들이 매우 다양하기에 날씨가 더 중요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YTN웨더 채널에 필요한 자막, normal, 브릿지, 타이틀 등의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리, 미용, 여행, 음악, 그림, 건강 등 날씨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그래픽을 제작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덕분에 평소 관심 없던 요리 전문 채널과 패션, 메이크업 프로그램들도 종종 챙겨보면서 레이아웃이나 모션 등을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디자이너란 협업을 통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웨더 식구들은 서로 자극제가 되어주고 같이 고민하면서 채널을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정도 많고 아이디어도 넘치는 웨더 PD들 덕분에 더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가 많고, 그뿐만 아니라 웨더 채널에서 새롭게 선보인 우측 상·하단의 기상특보상황, 태풍진로도, 강수예상도 또한, 기획과 회의, 디자인, 자동화 시스템 등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궁금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상팀에서 5층 웨더 그래픽팀으로 온 지도 2년이 되어갑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많이 보고, 듣고, 배우며 또 즐겁게 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태풍과 폭우뿐만 아니라 유난히 길었던 장마 덕분에 야근도 해가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아름다운 것처럼, 지루할 틈 없이 변화하는 '날씨'가 저는 좋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날씨를 닮은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는 DMB DGPS로 ...

이승엽 | YTN DMB 데이터서비스팀장

DGPS는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는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으로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입니다. 즉, GPS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GPS는 위성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단말기에서 수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섭에 따른 오차가 발생합니다.

GPS에 DGPS가 결합하면?

일반적으로 GPS의 정확도는 10m 이상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으며, 수신기의 GPS

성능과 가격에 따라 오차의 범위가 수백 미터까지 발생합니다. GPS에서 DGPS(오차 보정 기술)를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의 GPS에서도 평균 1m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DMB DGPS란?

DMB 데이터 방송으로 오차 보정 정보를 GPS 수신기에 제공합니다. 오차 보정 정보(DGPS)란 위성에서 보내온 신호를 한국에

있는 좌표 기준점에서 수신해, 기준점의 고유한 위치 정보와 위성에서 보내온 위치 정보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DMB DGPS의 장점이라면?

이동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자녀 '안심서비스'는 GPS와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위치 측정을 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곳과 '안심서비스'로 받은 위치가 차이가 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DMB DGPS를 적용하면 학생이 등하곳길에 인도 또는 차로 다니는지, 어떤 골목길로 다니는지, 문방구 혹은 학원을 경유 하는지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DMB DGPS는 DMB DGPS GPS의 줄임말로 사용했습니다. 즉 DGPS의 정보를 DMB로 수신해 GPS에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 DMB DGPS를 사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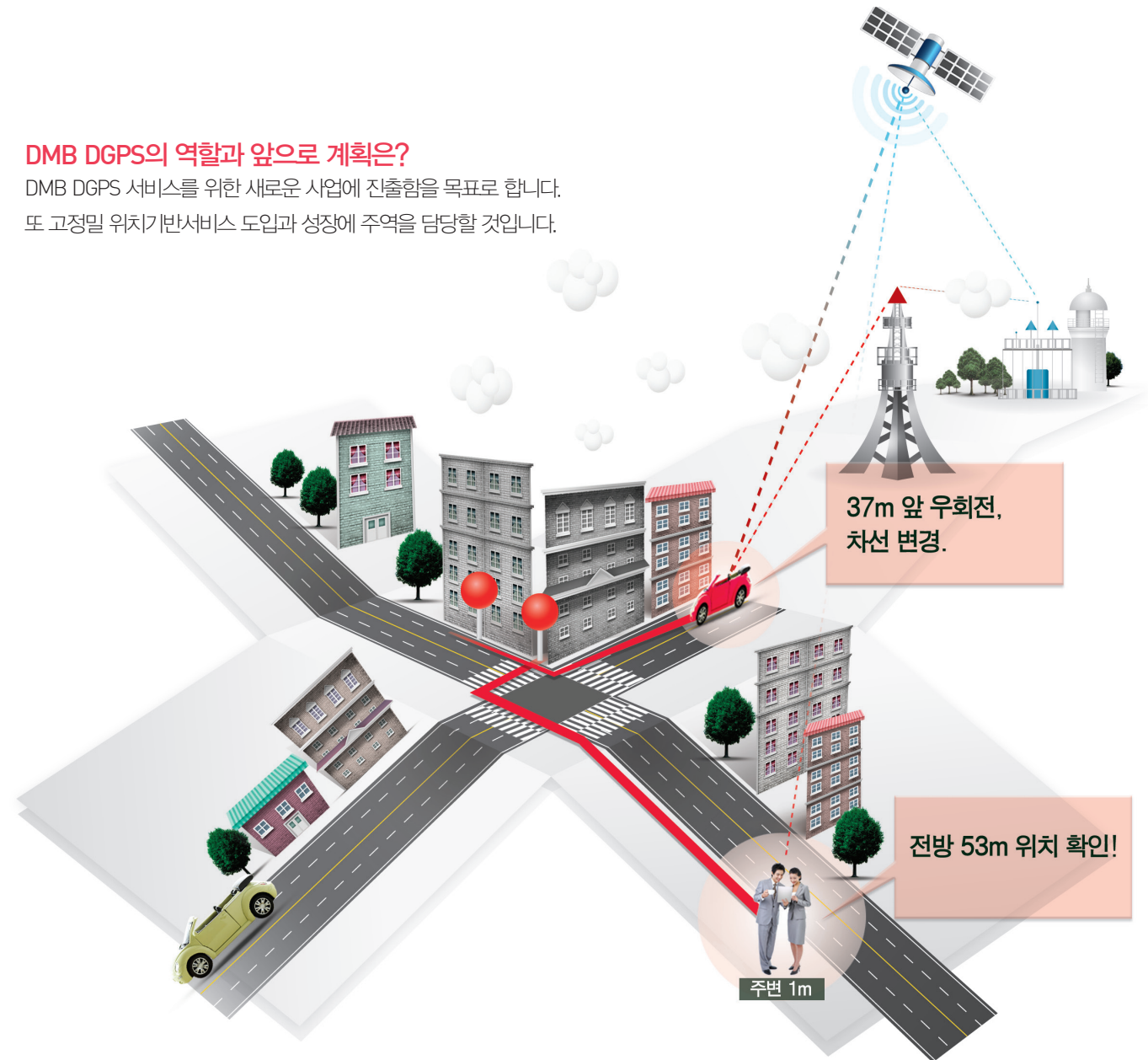
스마트폰의 DMB DGPS의 적용 검증을 하고, DGPS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14년 상반기에 가능합니다.



DGPS 적용 안심서비스(고정밀 연속측위) 가상 개념도

DMB DGPS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은?

DMB DGPS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을 목표로 합니다. 또 고정밀 위치기반서비스 도입과 성장에 주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2/4분기 포상

특종상 김준영 이선아 정자부 : 남북 당국회담 무산 보 및 특보 / 이만수, 양일혁, 한원혁, 백종규 사회부, 박정호, 최성훈, 류석규 영상취재부 : 남양유업 및 배상연주가 등 간의 횡포 연속보도 **특종상** 은상 김희준 황해경 김지선 정자부 : 탈북청소년 9명 리오스 강제추방 단독보도 **특종상** 동상 최원석 사회1부 : 일부 한국학생 SAT 6월 시험합격 보도 / 계훈희 사회부 : 수면마취 중 의뢰진 성추행 사건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노종범 사이언스TV 콘텐트제작팀 : (STEAM 패트볼) 제작 방송 **공로상** 이현선 미디어전략팀 회사 CI 개선 작업 기여 / 최유석 기획총괄팀 서울타워 본교동 시안자 선정 공로 / 지민근 마케팅2팀 연간계약 및 신규광고 유치 매출 증대 기여 / 김진희 편집위원 YTN 트윌리 팔로워 10만 돌파 및 스크롤뉴스 강화 / 오유철 해외방송팀 글로벌코리안 프로그램 획기적 개선 공로 / 이덕희 제작기술1부 16:9 DVE 스퀘즈 제작 활용 화면 품질향상 기여 / 박성근 사이언스TV 편성기획팀 YTN SCIENCE 채널 그래픽 향상 **표창** 양혜림 사이언스TV 편성기획팀 YTN SCIENCE 채널 이미지 향상 ... 78

NOTICE BOARD

퇴사 홍문표 부국장 영상취재부 7/31 / 한상복 해외방송팀 7/29 / 김꽃임 광고운영팀 7/25 / 성문규 앵커팀 7/22 / 이대환 중계부 6/21 **진보** 편성기획팀장 김상우 콘텐트기획팀장 김민, 범희철 부장대우 화인R&D팀장 유석현 국장 보도국 편집위원 신현준 차장 박소정 사회부, 최명신 차장 문화부, 김지영차장 국제부, 박경석 부장대우 편집2부 8/26 / 이경진 사회부, 영혜원 편집2부, 김도원 편집2부 9/2 / 신현준 보도국 8/16 / 김준원 유입지국장 유충섭 앵커팀, 박선하 해외방송팀 8/12 / 오정근 홍성혁 김선중 경제부, 김기철, 이승훈 사회1부 8/9 / 하성준 영상아카이브팀 8/1 / 전태익 중계부 7/24 / 이은구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7/22 / 백종규 전주지국 7/12 / 마영후 영상편집부, 정진아 기상그래픽팀 6/24 **승진** 국장 심의위원 김승환, 해설위원실 해설위원 최수호, 기술국장 정명철, 사이언스TV본부장 류희림, 국장대우 총무국장 김윤선, 미디어사업국장 황영수, 영상부국장 조용원, 기획이슈에디터 한영규, 글로벌뉴스센터장 박성호, 기획총괄팀장 임영선, 웨디본부장 추은호, 부국장 미디어전략실장 김장하, 심의팀장 조현우, 기획총괄팀장 이동현, 인사팀장 김형근, 타워운영팀장 강홍식, 마케팅국장 이영현, 마케팅팀장 설경수, 매체협력팀장 김호성, 취재2부국장 천상규, 편집부국장 임종열, 강원취재본부장 겸 춘천지국장 이재운, 대구지국장 채장수, 뉴욕지국장 김원배, 편집위원 김중술, 영상취재부 조성룡, 편성제작국장 채은석, 부국장대우 미디어전략팀장 박상남, 정보시스템팀장 정진웅, 신사업개발팀장 신사육간팀장 위은수, 관제팀 김장대, 울산지국장 김인철, 문화부장 김진호, 영상편집부장 이희호, 영상아카이브팀장 영혜진, 편성기획팀장 김상우, 해외방송팀장 권오진, 인프라팀장 김용규, 송출기술부장 김영철, 부장 뉴스지원팀 원경태, 경제부 송태연, 동경지국장 박철원, 그래픽팀장 이준호, 영상취재부장 김영우, 제작팀장 임수근, 제작기술2부 방윤열, 부장대우 미디어전략팀 박상기, 신사업기획팀 강성웅, 홍보·사찰지원팀 김승재, 매체협력팀 이백호, 정치부 김문경, 정한배, 경제부 이병식, 광주지국 김경록, 대전지국 정영환, 청주지국 유형식, 제주지국 정두운, LA지국장 정재호, 편집1부 이교준, 편집2부 조승희, 앵커팀 김영수, 유충섭, 호준석, 영상취재부 김태운, 노옥상, 원경빈, 윤상수, 이동현, 영상취재부 서승철, 이승주, 영상아카이브팀 한원상, 제작팀 사영식, 기술기획팀 류근민, 장비관리팀 유화성, 송출기술부 최광락, 제작기술1부 이병문, 중계부 이광희, 차장 콘텐트사업팀 김호석, 보도국 김태진(해외연수), 정자부 김희준, 박순표, 국제부 강태욱, 사회1부 임승환, 황보연, 광주지국 김병환, 대구지국 정기호, 부산지국 지대웅, 문화부 김석희, 편집부 이영희, 편집2부 임상호, 편집부 김경아, 과학기술팀 김지현, 영상취재부 영덕선, 편성기획팀 장석연, 인프라팀 조상현, 장비관리팀 권혁근, 정영태, 송출기술부 김진국, 제작기술1부 김재태, 중계부 김민태 ... 816